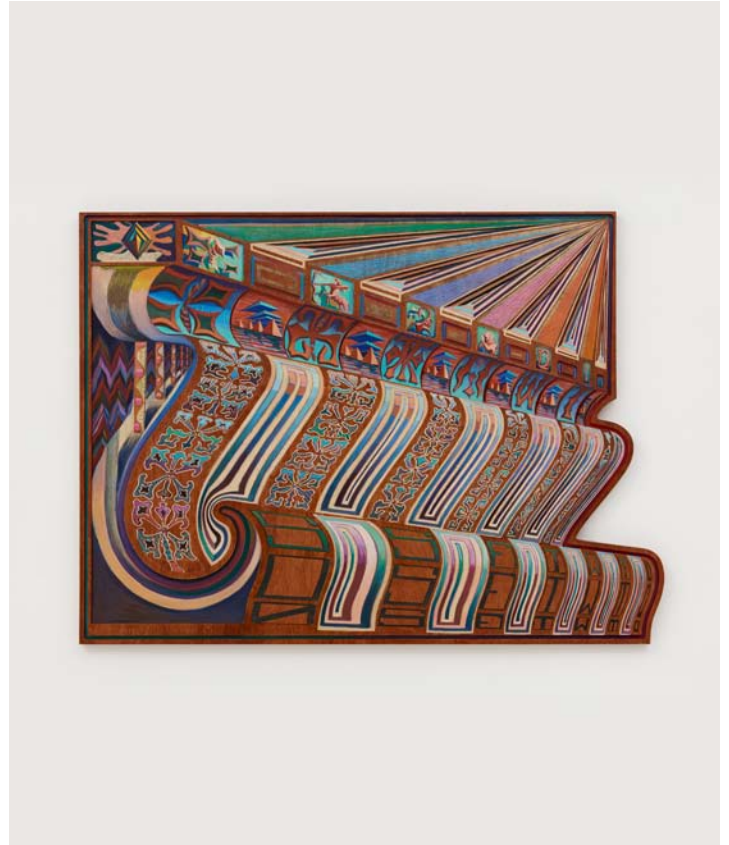




Zach HARRIS, *Eclipse Eye*, 2018. Carved wood, water-based paint, ink. 99.1 x 91.4 cm | 39 x 36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Zach HARRIS, *Zodiac Scroll*, 2018. Carved wood, water-based paint, ink. 88.9 x 119.4 cm | 35 x 47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Zach Harris *Sunset Strips to Soul*

Opening Thursday July 12, 5 - 7pm
July 12 - Aug 12, 2018

Perrotin Seoul is happy to announce Zach Harris' first show in Asia, and his second with the gallery, following his exhibition at Perrotin Paris in May 2017.

Zach Harris' carved panel paintings vacillate between pictorial realms. Within a single work, mathematical precision—an interest in systems, algorithms, and order—is integrated with feverishly drawn visions and complex color harmonies. The diverse aesthetic of Harris' work eschews ready-made identity. Paint is used as an exploratory medium, while intricate shallow relief wood carving allows for intensive planning and exacting craftsmanship. The illusory nature of Harris' painting skillfully modulates the tactile three-dimensionality of the object itself. Order and intuition, the tangible and the chimerical, the physical and the fanciful—these are the tensions with which Harris' work is fraught. A carved frame, rigidly geometric, merges into a visionary architectural fragment through which one sails into a vast landscape whose clouds are made of tiny, hand-carved Bosch-like figures.

For Harris, the aesthetics of the traditional picture frame, which have historically been overlooked as a non-art form, become problematized.

오프닝 목요일 7월 12일, 5 - 7pm
7월 12일 - 8월 12일, 2018

페로탕 서울은 아시아 최초로 자크 해리스 Zach Harris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페로탕과 자크 해리스의 인연은 지난 2017년 5월 페로탕 파리에서 열린 개인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자크 해리스의 작품 세계는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든다. 하나의 작품 안에서 수학적 정밀함—체계, 알고리즘, 질서에 대한 관심—과 열정적으로 묘사한 환상의 이미지 그리고 복잡한 색채의 하모니가 하나로 어우러진다. 그의 변화무쌍한 미학은 기존의 확립된 정체성과는 완전한 거리를 둔다. 물감은 탐색의 매체로 쓰이고, 얇고 섬세한 나무 부조는 철저한 계획과 정교한 세공 솜씨를 드러내는 밀바탕이 된다. 회화 이미지의 환상적인 성격이 작품이라는 오브제 자체의 촉각적 삼차원성을 절묘하게 조정한다. 질서와 직관, 실제적인 것과 상상의 것, 물리적인 것과 공상적인 것—바로 이런 긴장들이 해리스의 화면을 가득 메운다. 기하학적으로 정밀하게 조각된 프레임이 공상적 이미지의 건축적 단편 속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프레임을 통해 관객들은 거대한 풍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 풍경 속에는 작가가 일일이 손으로 조각한 히에로니무스 보스 (Hieronymus Bosch)의 작품과 같은 작은 인물들로 이루어진 구름이 동동 떠 있다.

자크 해리스는 역사적으로 비예술적인 형식으로 간과되었던 전통적인 회화 프레임의 미학에 의문을 던진다. 대신, 그는 프레임을 회화라는 전체 시각장의

Instead, they are used as an integral element of the entire visual field of the painting. The frame is not only a bounding element, one that delimits the physical parameters for a picture, but an entity that threatens to overtake the content of the image. Harris previously achieved this by giving the frame aesthetic prominence and making it the object of much artistic labor. *Keyhole Gate* (2018) imagines the furthest extension of this encroachment, as the frame becomes a checkerboard op-art screen across the entire surface, revealing a vast sky scene viewed through dramatically angled keyhole windows.

Zodiac Scroll (2018) takes the shape of an ornate architectural cornice. This provides Harris with an ideal form for invention, as the facets, curves, and niches of the moulding become the surfaces upon which Harris can graft his combination of pictorial languages. Here, geometric motifs—the errant Fleur-de-lis that shape-shifts with every iteration on the panel—coexist with the otherworldly. Silhouettes of centaurs and sublime landscapes alternate as they recede into the distance, an exaggerated perspective that rejects any claim to spatial representation.

Critics have marveled at Harris' ability to engage a number of pictorial traditions without relying too heavily on any single one. Early American modernism, visionary landscape painting, outsider art, and West Coast eccentricity all play some role in his aesthetic. Allusions to Persian miniatures, Islamic ornamentation, Mandalas, and Christian altarpieces have also been gleaned from Harris' work. A practitioner of meditation, Harris imbues the creative act with productive passivity. He seeks a kind of automatism in producing images whereby his hand moves and etches without conscious thought. This process, and the effect achieved by it, places Harris in a long lineage of esoteric imaging and hallucinatory diagramming. Mystery is offset by mathematics, and structure, in turn, is softened by fancy. He manages to evoke a sense of spirituality that defies specificity, yet is keenly felt. Harris captures a subtle, otherworldly sense of light and space without recourse to the tropes of "spirituality" in art and culture.

Zach Harris

Born in 1976 in Santa Rosa, California, Zach Harris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His work is included in several collections: the Marciano Art Foundation, Los Angeles, the Hammer Museum, Los Angeles, the Santa Barbara Museum of Arts, among others.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

일부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한다. 프레임은 경계를 짓는 요소, 다시 말해 회화의 물리적 조건들에 한계를 설정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회화 이미지의 내용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해리스는 이것을 프레임에 미적 탁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상당한 예술적 노동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이어 나갔다. *Keyhole Gate* (2018)는 이러한 잠식을 가장 확장된 차원으로 시도한다. 프레임이 화면 전체를 뒤덮는 바둑판 모양의 옵아트 스크린은 인상적이게도 각이 져 있는 창의 열쇠구멍을 통해 광활한 하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Zodiac Scroll (2018)은 건축의 장식적 요소로 쓰이는 처마 돌림띠의 형태를 취한다. 해리스에게 이것은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볼 수 있는 이상적 조합이다. 그는 몰딩의 단면과 곡면, 틈새에 자신의 그림언어 조합을 그대로 옮겨놓을 수 있었다. 기하학적 모티브—패널 위에서 끝도 없이 반복하며 변신하는, 평범한 플뢰르 드 리스 문양—와 피안적인 것이 공존하며, 켈타우르스들의 실루엣과 송고한 풍경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하며 아스라히 뒤로 후퇴한다. 이것들은 공간적 재현에 대한 일체의 요구를 무시하며 원근법을 극도로 과장한다.

평론가들은 회화에서 수많은 전통을 어느 것 하나 지나치게 의존함 없이 능수능란하게 소화하는 해리스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해왔다. 초창기 미국 모더니즘, 환상적인 풍경화, 아웃사이드 아트, 미 서부해안 미학의 자유분방함 등이 모두 해리스의 미학 안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 페르시아의 세밀화, 이슬람 장식, 만달라, 기독교 제단화 등도 해리스의 작품으로부터 연상되어 진다. 명상가이기도 한 작가는 창작 활동에 생산적 수동성을 불어넣기도 했다. 자크 해리스는 이미지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오토마티즘 기법을 추구하며,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손을 움직이고 조각을 새긴다. 바로 이 과정, 그리고 이것이 낳은 효과 때문에 해리스는 비의적 이미지와 환각적 도형화의 긴 역사적 연장선 위에 서게 된다. 수학이 신비를 상쇄하고, 공상이 구조를 부드럽게 만든다. 작가는 영성의 감각, 다시 말해 그 어떤 특수성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첨예하게 느껴지는 감각을 우리 안에서 일깨우고자 한다. 작가는 "영성"의 어휘들에 굳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빛과 공간에 대한 섬세하고도 초자연적인 감각을 포착해내는 데 주목한다.

Zach Harris

1976년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서 출생한 자크 해리스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그의 작품들은 Marciano Art Foundation, Hammer Museum, Santa Barbara Museum of Arts 등 미국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는 페로탕과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